

금호타이어 노사협상 “연속 고배”

구조조정안 합의 실패 26일 재개 ... 노조 협상안 제시에도 빠그덕

워크아웃이 진행 중인 금호타이어는 구조조정안을 놓고 벌인 14차 협상이 성과 없이 끝난 것으로 나타났다. 3월24일 노조는 회사가 협상 마감일로 통보한 25일을 하루 앞두고 열린 14차 협상에서 자체적으로 마련한 최종협상안을 제시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고 밝혔다.

노조 협상안은 기본급 10% 삭감안을 유지하면서 상여금은 중전 100% 반납에서 200% 반납으로 양보했으며, 정년퇴직 예정자를 중심으로 한 단계적 도급화는 받아들이지만 해고는 불가하다는 내용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금호타이어는 “검토할 시간이 필요하다”며 25일 교섭을 재개하기로 했다. <저작권자 연합뉴스 -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화학저널 2010/03/25>